손예진의 고백… “늘 두려움과 싸워왔다”

영화 ‘비밀은 없다’ 학부모 변신

“데뷔 초 광고로 만들어진 내 이미지 다 벗어던지고나면 조금 자유로워”

배우 손예진(34)은 “늘 두려움과 싸워왔다”고 했다.

부지런히 다양한 영화를 선택해 연기 변신을 해왔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데뷔 이후 15년 동안 한 번의 스캔들도 없이 오직 연기에만 몰입해온 그를 지탱한 힘은 그런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영화 ‘비밀은 없다’(감독 이경미·제작 영화사 거미)의 23일 개봉을 앞두고 만난 손예진은 ‘털털한 화법’을 구사하며 여배우의 마음을 가감 없이 털어놓았다. 애써 꾸며 말하는 법도 없었다. 자신의 생각을 최대한 핵심적으로 설명하는 화법이 인상 깊었다. 새 영화를 소개하는 첫 마디로 그는 “또 다른 의미의 터닝 포인트”라고 했다.

“촬영장 조명이 강하면 피부의 상태가 전부 드러난다. 여배우로선 당연히 싫다. 예쁘게 보이고, 또 어려보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나. 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 전부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나섰고, 그렇게 조금 자유로워졌다.”

손예진은 자신이 관객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 대중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의 경계에서 한때 “갈등한 순간도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주관’을 다졌다.

“내 이미지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나. 데뷔 초에 영화나 광고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있다. 그것도 내 이미지다. 나이가 들어 여유로워졌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다.(웃음)”

‘비밀은 없다’는 손예진이 “용기를 내 선택했고, 연기를 하면서도 용기가 필요했다”고 설명하는 영화다. 중학생 딸을 둔 엄마라는 역할 때문만은 아니다. 지방 신도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남편(김주혁)을 도와 선거 유세에 적극적인 극중 모습은 그저 시작일 뿐이다. 유세와 동시에 사라진 딸을 찾으려고 홀로 비밀을 파헤치는 손예진이 그려내는 모성애는 절절한 안타까움이라기보다 ‘광기’에 가깝다.

손예진은 “계속 다른 세계의 옷을 입고, 관객이 나를 특정한 이미지로 보지 않길 원하고 있다”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변화를 시도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남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까지 견딘 지금은 “달라졌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사실 손예진처럼 연기 활동을 꾸준히 그리고 다양하게 해온 여배우는 드물다. 그는 자신의 활동을 “달려왔다”고 표현했다.

“연기하는 매 순간이 행복했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고통의 시간도 많았다. 나는 최대치를 끌어올렸지만 달라지지 않을 때도 겪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람들로부터 얻었다. 손예진의 곁에는 “오래된 사람들”이 많다. 고등학생 때 처음 만나 지금까지 함께하는 소속사는 물론이고 메이크업과 헤어를 담당하는 스태프와도 14년째 함께 한다. 손예진은 “나에게 사람은 중요하다”고 했다.

손예진은 얼마 전 요절한 영국가수 에이미 와인 하우스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에이미’를 본 경험을 꺼냈다.

“예술은 힘겨운 상황에서 나오는데, 그럼 나는 어떤가. 정신이 건강하면 과연 좋은 연기가 나올까 싶더라. 심지어 여배우는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하지 않나. 참 어렵다.”

그런 손예진은 “스트레스를 일부러 피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과 스트레스로 자신을 혹사한 순간에는 여행을 떠난다. 알려진 ‘여행 마니아’이다.

“운동복 입고 학생처럼 걸어 다닌다. 여행을 할 때는 한계가 없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배우 손예진은 23일 개봉을 앞둔 영화 ‘비밀은 없다’에 대해 “또 다른 의미의 터닝 포인트”라고 했다. 자신이 관객에 보여주고 싶은 예쁜 모습을 벗어던지고 과감하게 나섰고 조금 자유로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사진제공 | 영화사 거미

▌손예진 결혼관은?

결혼은 신중하게… 난 아직 워커홀릭

미혼인 톱스타에게 ‘결혼관’ 혹은 ‘결혼 계획’을 인터뷰에서 묻는 건 지나칠 수 없는 ‘관례’다. 대중이 가장 큰 호기심을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손예진도 예외일 수 없다.

실제로 손예진은 30대에 접어든 후 “친구들과 결혼에 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한 친구들도 많고,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다. 가장 친한 동료인 배우 송윤아, 엄지원과 만나 대화할 때도 자연스럽게 소재는 결혼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송)윤아 언니와 (엄)지원 언니는 나한테 결혼하라고 권한다. 설경구 선배님은 농담을 더해서 누가 나를 데려갈지 궁금하다 하고, 하하!”

주위에서 결혼 계획을 물을 때면 손예진은 “할 거야”라고 대답하곤 했다. 진심어린 대답이라기보다 습관처럼 꺼낸 말에 가까웠다. 그렇게 답하면서도 손예진은 내심 “진심으로 결혼을 원하고 있는 건가, 고민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적당한 때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사실 나는 워커 홀릭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나는 워커 홀릭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나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일’과 ‘결혼’ 가운데 지금은 일에 주력하고 싶다는 뜻이다. 손예진은 적어도 상황에 떠밀려, 외로운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다.

“결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결혼은 가장 신중해야 하는 일이니까.”

이해리 기자

〈美男〉

‘미남’들, 한국행 러시

데이먼·레이놀즈 등 주연작 홍보차 내한

맷 데이먼

라이언 레이놀즈

할리우드 스타들이 극장가 빅시즌을 앞두고 한국을 찾아 관객과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가뜩이나 규모가 큰 영화들이 한꺼번에 몰려 흥행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여름 극장가에 할리우드 스타의 내한까지 더해져 그 양상이 가열되는 분위기다.

배우 맷 데이먼이 7월 내한을 추진하고 있어 시선이 쏠린다. 7월28일 개봉하는 첩보액션 시리즈 ‘제이슨 본’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현재 구체적인 시기 등을 조율 중이다.

사실 ‘제이슨 본’은 그 자체로 7월~8월 극장가의 ‘복병’으로 전망되는 영화다. 2002년 ‘본 아이덴티티’로 시작해 2007년 ‘본 얼티메이텀’까지 총 3편이 제작된 인기 시리즈의 주인공인 맷 데이먼이 햇수로 10년 만에 다시 내놓는 신작이다.

특히 맷 데이먼은 최근 국내 극장에서 티켓파워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지난해 개봉한 ‘마션’은 448만 관객을 모았다. ‘본의 귀환’으로도 불리는 이번 ‘제이슨 본’은 사라졌던 스파이 본이 다시 나타나 벌이는 극한의 첩보전을 그린다. 시리즈를 함께 해온 제작진과 감독이 전부 다시 뭉쳤다.

국내 여성 관객을 중심으로 ‘팬덤’을 쌓은 할리우드 스타 라이언 레이놀즈와 한국계 배우 이기홍 역시 나란히 내한한다. 이들은 현재 할리우드 인기 시리즈의 주인공이란 사실에서 관심을 더한다.

라이언 레이놀즈는 22일 개봉하는 영화 ‘크리미널’을 알리기 위해 7월 초 처음 내한해 관객과 직접 만나는 무대인사 등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올해 2월 330만 관객이 관람한 영화 ‘데드풀’의 주인공이자, 또 다른 히어로 시리즈 ‘그린랜턴’의 주역이다.

한국계 미국인 배우 이기홍 역시 이달 말 한국을 찾는다. 영화 ‘메이즈러너’ 시리즈로 유명한 이기홍은 앞서 몇 차례 내한했지만 한 번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을 직접 알린 적이 없다. 이를 만회하려는 듯 이번에는 인터뷰에 적극 나서 연기 활동을 직접 소개한다.

동시에 이기홍은 영화 ‘특별시민’ 촬영에도 나선다. 한국영화는 처음인 그는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이야기에서 유력 정치인의 아들 역을 맡아 최민식, 라미란과 호흡을 맞춘다.

이해리 기자

▌빅마우스

● “톱 언저리에만 있었다.”(배우 김혜수)
19일 방송한 SBS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에서. 진행자 김수로의 “30년 동안 톱을 유지한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 “나보다 어린 스태프에게 반말 들었다.”(가수 다나)
20일 방송하는 KBS 2TV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최근 녹화에서. 1986년생이지만 아직도 어린 이미지로 인한 고충을 털어놓으며.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